



바람이여 바람이여 바람이여

나그네에게

이슬상아나

슬상아

이 나그네에게

풍이가지와

가을이와지않는데

아아 바람이여

바람이여 바람이여

호거산 윤문사의 시심음해

가을, 풍성한 수행의 결실을 기다리며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면서 터득한 것은
비록 작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운문사의 가을은 풍성합니다. 은행나무는 하늘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도랑 곳곳에는 감이며 대추 등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도랑 밖으로 나가면 밭에는 여름 내내 피약별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길렀던 곡식이 가득합니다. 백장스님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운문사에서 가을은 또한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걷이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학인스님들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자칫 타성에 젖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여름 피약별 아래서 일군 곡식들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알찬 수행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대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하였거나 한탕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돈 씹씹이가 해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물을 주었던 사람만 장미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여름철 피약별 아래 땅을 일구었던 사람에게만 가을의 수확이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도 어느 날 문득 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간절하게 노력했던 것만 자신의 몫이 됩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예불 드리고 공부하고 밭에 나가 일하는 운문사의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면서 터득한 것은 비록 작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종단 역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부터 주인이 강하면 그 누구도 감히 집 안을 넘보지 못합니다. 요즘 종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자신이 좁은 울타리에 갇혀 세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성적으로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깃발을 높이 세워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철저히 수행하고 더 굳건하게 자신을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들판 가득 쌓여 있는 가을걷이처럼 여러분의 수행의 자량(資糧)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I

- 운문사를 중심으로 -

은 광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사찰

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② 비전을 제시하는 정신문화의 공간

3. 전통사찰문화와 디지털문화의 만남

4. 맺음말

1. 머리말

전통사찰은 문화의 보고(寶庫)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명산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고색창연한 법당의 단청과 벽화, 비바람에 마모되어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석탑과 석등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

도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있다.

사찰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이다. 때마침 주 5일 근무로 인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사찰을 가족 중심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문화답사 차원에서 또는 여행·관광·신행활동을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이런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게 되는 사찰은 바쁘고 힘겨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공간이자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자 수행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운문사를 중심으로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능과 가치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불교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현대와 소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는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정신적·지적·문화적·신앙적 충족감을 어떻게 현대적 감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디지털 문화는 향후 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사찰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다. 그래서 놀라운 속도로 사회는 변화되었고 일정량의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즉 의·식·주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거의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와 황금제일주의는 인간성의 상실과 불신, 인간 소외와 인간 고독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건강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발전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달려

간 곳에는 너무도 많은 함정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전통적인 것으로 한국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에 대한 안목과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고 동시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실감과 소외감이 전통문화에 대한 자각으로 일정 부분 치료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문화에 대한 자각과 생활양식, 정신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곳, 그 지점에 전통사찰이 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보유한 상태로 존재해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 사회의 변화 속도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평가의 기준이 일반개념과는 다른 시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불교이다. 특히 전통사찰은 천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타일러는 『원시문화』(1871)에서 문화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법, 도덕, 관습뿐만 아니라 여타의 능력이나 관행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complex whole)'¹⁾ 라고 정

의 내렸다.

또 2002년 10월 14~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가 채택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에서 문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²⁾

문화라 함은 한 사회 혹은 한 사회단체를 특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창조적인 표현(예 : 구전역사, 언어, 공연예술, 미술, 공예), 사회의 관습(예 : 민간 치료요법, 전통적 천연자원 관리, 의식 및 단체와 개인의 복지 증진과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방식), 그리고 유적지, 건물, 도심 내 역사유적지, 풍경, 예술, 개체와 같은 물체나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³⁾

문화란 의미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정의 내릴 수 있다.

김갑기는 사찰을 시(詩)·서(書)·화(畵)가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 표현⁴⁾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사찰의 건축양식과 단청, 벽화와 탕화, 그리고 각 전각에 걸려 있는 주련과 현판은 그림과 글씨와 시(詩)를 논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찰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행위 및 그곳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일상적인 생활모습들은 종합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사찰은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

1) Edward Burntt Tylor,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Gordon Press, 1976, p.1.
 2) 이재수, 『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제47집, p.317.
 3)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Fifth Annual Ministerial Meeting,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ape Town, South Africa, October 14-16, 2002.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무역과 문화다양성』(자료집), 2003, pp.9~10, 참조.
 4)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 寺刹題詠詩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제35집, p.244, 참조.
 김갑기는 "사찰제영시(寺刹題詠詩)를 통해서 사찰이 단순한 불자의 수도 도량일 뿐만 아니라, 유불불이(儒佛不二)의 '만남의 터'이자, 우수한 종합문화공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치를 가지고 있는지 운문사⁵⁾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한국의 미(美)는 '자연의 미(美)'다. 이는 곧 자연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이다. 스토아 학파의 크리시포스(Chrysippos)는 "미(美)야말로 모든 대상의 존재 이유"라 하고, 자연의 만상은 "미(美)를 목적으로 해서 태어났다."⁶⁾는 말처럼 자연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인위적이고 조작한 아름다움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번거로운 일상을 떠나 사찰에 오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서의 휴식은 격조 높은 문화공간에서의 휴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이 제공하는 풍요로움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정신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찰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또 사찰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다.

전통공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상은 불교의 공(空)사상과 도가의 비움 사상이다. 두 사상의 배경은 뚜렷이 분리되지 않고 혼

재되어 전통 공간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비움의 개념은 종교에서 시작되어 사상과 민족 정서를 거쳐 건축 공간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했다. 비움의 개념은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그러나 내용과 모습을 달리 해가며 나타났다. 불교의 공간인 사찰이 불교의 공사상과 연관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⁷⁾

임석재는 사찰의 건축은 불교의 공사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찰건축을 포함한 불교의 모든 문화는 공사상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불교정신과 이상을 가지고 건축된 공간이다.

불교의 유일한 소원은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열등의식, 소외감, 불안과 공포 등등이 사라지고 환하고 밝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찰이라는 공간 속에 내포되어 있다. 온 국민의 휴식처로서의 전통사찰은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각종 문화재와 보물,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숲속의 박물관인 셈이다. 급하고 바쁜 마음을 가지고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사찰에는 산재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은 발견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육감(六感)⁸⁾을 통해 소리와 향기와 색채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들리지 않던 것이 들

5) 운문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거산(虎窟山)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호거산의 명칭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운문산'으로, 『경상북도청도군운문사적』에서는 '虎窟山'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에서는 이 양자가 따로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운문산의 지맥이 호거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호거산 즉,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운문사사적』에는 '작갑(鵲岬)'이라는 이름은 절의 서록(西麓: 서쪽 산기슭)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쳐다보는 모양이어서 황벽(黃茀: 황색벽돌)으로 탑을 만들어 홍맥(凶脉: 흉하게 서로 바라보다)을 진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사방의 갑(岬, 5갑)들도 역시 사방의 홍맥을 진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여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된 듯하다. 운문사 창건과 관련된 자료로는 『삼국유사』 권5의 '원광서학조'와 '보양이목조'가 있다. 『운문사사적』에 의하면, 운문사는 557년(진흥왕 18년)에 한 신승(神僧)이 북대암 옆 금수동에 작은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수도하여 도를 깨닫고 뜻을 같이 하는 10여 인의 도움을 받아 7년 동안 동쪽에 가솔갑사, 서쪽에 대비갑사(현, 대비사), 남쪽에 천문갑사, 북쪽에 소보갑사를 짓고 중앙에 대작갑사(현, 운문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운문사와 대비사뿐이다. 운문사의 창건 기록은 『삼국유사』 권4 「圓光西學條」, 「寶壤梨木條」 및 彩軒의 『慶尙道淸道郡東虎窟山雲門寺事蹟』, 『조선사찰사료』에 전하고 있다. 그 외 『삼국사기』 권45 「貴山條」, 『해동고승전』 권2 「圓光條」도 참고할 수 있다. 『청도운문사』, 청도문화원, 1992, pp.14~15, 참조.

6) 백기영, 『美의 思索』, 제2장, 제1절 「1」② 미와 자연, 서울대학교 대학교양총서 10, 1986, p.66, 참조.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35집, p.246, 재인용.

7)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pp.15~20, 참조.

8) The sixth sense, 불교에서는 육근(六根)이라고 한다. 즉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意)라는 감각기관을 말한다. 이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람의 지각 기능별 정보 수용량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이 60%, 청각 20%, 촉각이 15%, 후각이 3%, 미각이 2%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미지로 읽은 세계불교사 1』, 참여불교, 2008, p.58.

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스치고 지나가기 십상인 것들이 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운문사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250여 명의 학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운문사는 아직도 가마술에 불을 때서 음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엌에 쌓여 있는 장작과 부뚜막을 볼 수 있다. 공양을 지을 때 나는 굴뚝의 연기와 나무 타는 냄새는 우리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데리고 가서 향수에 젖게 한다. 땃돌 위에 반듯하게 벗어져 있는 흰 고무신과 학인스님들의 글 읽는 소리는 이곳이 살아 숨쉬는 수행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넓고 넓은 밭에 온갖 채소가 단정함을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풍광은 산 속의 깊은 사찰에는 아직까지 고된 농사일을 수행삼아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위풍당당한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한 기세로 겹겹이 펼쳐져 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지붕은 우리 한옥의 아름답고 섬세함을 자랑하는 것들 중의 일부라 하겠다. 설 사이 없이 들리는 새소리와 흐르는 물소리, 푸른 산천초목은 사찰이라는 공간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신선한 청량제가 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운문사를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박물관에 각각의 장르별로 배치되어 있는 여러 작

품들을 관람하는 것처럼 사찰에서도 각각 자기의 관심 분야별로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1. 색채나 색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어 관람할 수가 있다.

(벽화 · 탕화 · 불화 · 단청 · 꽃 문양 문살 등등)

2. 각 전각에 그려져 있는 벽화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운문사 비로전: 팔상성도, 오백전과 만세루: 심우도, 대웅전: 육바라밀, 대웅전 내부: 부처님 전생담, 육조혜능, 설산동자이야기 등, 서점: 싯달타 태자의 명상, 구정선사, 혜가대사,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 등)

3. 운문사 문화재와 보물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⁹⁾

4. 전각의 건축 양식

(맞배지붕, 팔작지붕, 홀처마, 겹처마, 주심포, 다포)

5. 불상과 보살상 및 수인과 지물¹⁰⁾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관음, 문수, 보현, 지장보살 등은 각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6. 현판과 주련의 글씨와 내용에 대한 이해

7. 불전의 장엄양식

(광배, 대좌, 수미단, 단집, 꽃살문, 운장대¹¹⁾, 기둥, 귀면 등등)

8.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교실로 이용

9) 운문사의 보물로는 비로전, 금당 앞 석등, 청동호, 원웅국사비, 석조석가여래좌상, 사천왕 석주, 삼층석탑 등이 있다. 비로전은 1105년 원웅국사가 건립하였다고 전하지만 상량문의 기록으로 보아 1653년에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원웅국사비는 고려 인종 때 건립된 것으로 원웅국사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윤언이(尹彦頤)가 지었으며, 글씨는 대감국사(大鑑國師) 탄연(坦然)이 썼다. 사천왕 석주는 작압전 내에 봉안되어 있으며 사천왕들이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사천왕을 석주에 조각한 것은 희귀한 예이다. 『호거산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출판부, 2002, pp.28~32. 참조.

10) 수인(手印)은 불상의 손의 위치와 손가락 모양이 각 불 · 보살의 특성이나 본서(本誓), 또는 그것과 연관된 중요한 일화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징부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 · 보살의 수인의 연원은 인도의 제의(祭儀)나 춤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체험을 더욱 강렬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무용이나 노래와 함께 무드라(mudra: 손가락의 놀림)를 행했던 것이다.

지물(持物)이란 몸에 지닌 물건을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특히 여래나 보살, 신중 등이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지물은 실재의 물건을 모방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으나,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일은 그것을 지닌 존상의 성격과 권능과 서원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허균, 『사찰의 100美 100選』, 불교신문사, 2007, pp.278~285. 참조.

11) 불교에서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 책장의 일종으로 불교에서는 경전을 넣은 책장을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운장 또는 전륜장(轉輪藏) · 전륜경장(轉輪經藏)이라고도 한다.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의지하여 원형 또는 다각형의 나무장을 올린 뒤 여기에 경전을 넣고 손잡이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든다. 경전은 경장뿐 아니라 율(律)과 논(論), 여러 고승들의

(운문사의 굴뚝, 돌담, 정원, 나무와 꽃에 대한 관찰, 수목원이나 숲길 걷기, 나무 안아 보기, 청진기를 가져와서 나무 숨소리 들어보기(봄에 가능), 흐르는 물에 손 담가보기, 흙길 맨발로 걷기, 땅바닥에서 흙장난하기, 법당에서 절하기, 빗소리 들어보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바라보기, 새소리 들어보기 등등)

위의 항목들이 유형의 문화예술이라면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은 무형의 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불교의식으로 해질 무렵 범종루에서 거행되는 범고·목어·운판·범종 등 사물(四物)¹²⁾소리는 스님들의 예불의식과 더불어 가치를 초월한 절대적 문화상품¹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산을 울리며 퍼지는 범종소리와 250여명의 수행자가 함께 올리는 예불의식의 운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술이나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존재한다. 

(다음호에 계속)

장소(章疏)도 함께 넣어 둔다. 『석문정통(釋門正統)』 탑묘지(塔廟志)에 따르면 사찰에 처음 윤장대를 설치한 것은 중국 양(梁)나라 때의 선혜대사(善慧大士) 부휴 현풍(傅翕玄風)으로, 불도를 믿으려 하나 글을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공덕이 같다고 하였다.

이 기록의 진위와 상관없이 백거이(白居易)가 편찬한 『백씨문집(白氏文集)』 「소주만선원 천불당 전륜경장」의 석기(石記)에 '불당 중앙에 경장이 있는데, 8면으로 되어 있으며 경방 안에는 바퀴를 달아서 돌릴 수 있게 하였다.' 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나라 때에도 윤장대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후대의 윤장대에는 정면에 가사를 입은 대사상이 있고 좌우에 2명의 동자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윤장대를 만든 부휴과 그의 아들 보건(普建)·보성(普成)을 그린 것이라 한다. <http://www.naver.com/참조>.

- 12) **범종**: 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악기로서의 악종(樂鐘)이 있고, 위급함을 알리는 경종(警鐘)이 있으며, 시와 때를 알리는 시종(時鐘)이 있고, 불법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찰의 범종이 있다. 범종을 치는 횟수는 새벽에 28회, 저녁에 33회인데 새벽에 28회를 타종하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의 28곳의 하늘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에 33회를 타종하는 것은 선전궁(善見宮)을 포함한 33천(육계 육천(欲界 六天) 중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兜利天)을 일명 '33천'이라고도 함)에 각각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허균, 『사찰의 100美 100選』 상권, 불교신문사, 2007, pp.130~131. 부분 참조.

또한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새벽에 28번을 치는 이유는 육계, 색계, 무색계 28천의 하늘 문을 열어 지옥중생을 건져 올리고자 함이고, 저녁에 33번을 치는 이유는 33천의 문을 닫아 하루 중 건져 올린 지옥중생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이라는 설이 있고, 새벽에 치는 28번의 의미는 마하 가섭으로부터 육조 혜능에 이르기까지 28대 조사를 뜻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http://daum.net/> 참조.

그러나 논자에 따라 해석이 구구하여 어느 것이 확실한지 단언키 어렵다. 우리나라 범종은 종교적 의기(儀器)로서 뿐 아니라 금속 공예사(工藝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범종은 '한국의 종'이라는 학명(學名)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범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의 모든 고통이 쉬기를 바라는 의미). 허균, 위의 책, pp.131~133. 참조. 그러나 논자에 따라 해석이 구구하여 어느 것이 확실한지 단언키 어렵다. 우리나라 범종은 종교적 의기(儀器)로서 뿐 아니라 금속 공예사(工藝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범종은 '한국의 종'이라는 학명(學名)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범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의 모든 고통이 쉬기를 바라는 의미).

범고: 불교에서 범고는 각종 재를 베풀고 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식용 도구, 또는 소리공양을 베풀어 속세의 모든 축생을 제도하는 상징적 용구가 되기도 한다. 북과 관련하여 불경에서는 정법의 북을 쳐서 시방세계를 깨우치게 한다거나, 상서로움의 징조로서 하늘 북이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사찰에서 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범고를 치는 이유는 사바의 모든 축생이 제도 되길 염원하는 뜻).

목어: 당초에 신호용 용구로 만들어진 목어와 운판이 범종, 범고와 함께 사물이라는 예기(禮器)의 성격을 띠고 사찰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찰의 독특한 면모라 할 수 있다. 목어와 운판을 아침저녁 예불시간에 맞추어 치고 있지만 그것을 치는 순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아침에는 목어를 먼저, 저녁에는 운판을 먼저 치는 것이다. 이것은 東-木, 西-金이라는 오행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이 경우에서도 한국 사찰 의례의 독특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목어를 치는 이유는 水中 동물을 위해서).

운판: 운판은 청동 또는 철제 평판으로 만들어졌다. 그 모양이 구름처럼 생겼기 때문에 운판이라고 부른다. 운판은 원래 선종 사원에서 소리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던 용구이다. 일파에 따라 행하는 수면·좌선·재식(齋食) 등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했음으로 화판(火板), 장판(長板)등으로 불리었다. 운판을 두드려 나는 소리는 신령을 감동시키고, 못 중생을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진 소리로 이해하기도 한다(운판을 치는 이유는 허공을 나는 날짐승을 위해서). 허균, 위의 책, pp.136~148. 참조.

- 13) “여기서 ‘상품의 개념’은 전통적인 맑스적 해석 또는 과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유형적 상품의 의미를 넘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상품개념만이 아니라 철학, 예술 등의 개념과 범주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품’의 새로운 정의가 도출될 때, 그리고 철학과 예술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적극적으로 해석될 때, 인간사회의 보편적 삶의 가치, 즉 민주성을 고양시킬 수 있고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소통과 공존]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상품의 개념에 대해 박상환은 주장하고 있다. 박상환, 『韓國文化Contents의研究動向及對問題點의哲學小考』, 한국철학논집 제22집, pp.292~293. 참조.



莫謂慈容難得見 자비로운 얼굴을 뵈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不離祇園大道場 기원정사의 대도량을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니
 虛空境界豈思量 허공의 경계를 어찌 가히 헤아릴 것인가!
 大道清幽理更長 대도는 맑고도 그윽하고 이치 또한 장대함이라

- 편집 부 -



부처님의 진정한 그림자 되기

등 광 / 사교과

한국경 군인이 묻습니다.
“감히 여쭙소니 그대는 누구시옵니까?”
라마가 대답합니다.
“보시다시피 미천한 비구일 뿐이요.”
다시 국경 군인이 한번 더 묻습니다.
“당신이 부처시옵니까?”
라마가 합장을 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그림자일 뿐이요,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나를
통해 그대들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원할 뿐...”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그림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수행이라는
길 위에서 허덕이며 땀박질을 하고 있는 사교반
등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님들이라면 한번쯤은 보셨을
법한 영화 <쿤둔>에서, 달라이 라마가 자국인 티벳
을 떠나 인도로 망명하기 위해 국경을 넘기 직전
에 국경 군인과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림자라 ...

여러분은 이 짧은 대화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
까?
저는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마음 한켠이 먹먹

해져 옴을 느끼며 가슴을 부여잡은 기억이 있습니
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행자임을 ...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길에 올라서서, 부처님의 법을 잇는 제자
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함과 기대와
발원과 시주를 받고 있는지를 ...

저의 출가는 진발심(眞發心)을 하여 출가를 한
스님들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
혼 전에 부처님의 법을 알았더라면 스님이 되었을
거라고 늘 말씀하시던 부모님께서 자신의 딸이라
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대자유인의 길을 걷기를 바
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저를 이 불문으로 이끄셨습
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엇이든지 금방 익숙해지면 싫
증을 잘 내는 저의 성격이 불문에 들어와서도 어
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출가하여 3개월 가량이 지
나자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절집생활이 조금은 익
숙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망상이라는 것을 하기 시
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부
처님 제자로서의 삶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
감, 아직은 어린 나이로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세속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저의 마음은 복잡해지

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행자생활을 하던 곳으로 허리가 반쯤은 구부러진, 그래서 걸음조차 버거워 보이는 한 노보살님이 와서는 한 묶음의 노란 쌀 자루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하며 자루를 들여다 보니 산에서 막 뜯어온 나뭇잎이 자루에 반쯤 담겨져 있었습니다.

공부하시는 스님들께 다른 건 해드릴 것이 없고 하루 종일 산에서 헤매며 뜯어온 나뭇잎이라도 드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며 허리를 깊이 구부리며 부탁하시는 모습에 순간 머리 카락을 잘라 팔아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렸던 늙은 빈녀 난타의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가 생감이 났습니다.

당신의 손자뻘보다 훨씬 더 어린 저에게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허리를 깊이 구부리며 부탁을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구나!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염원이었다고는 하나 제가 진정으로 원치 않았다면 이 불문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전 그때까지도 부모님으로 인해 출가를 했다는 핑계를 가지고 도망 아닌 도망만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망상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 이곳 운문사에 와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서툰 세속의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아 흔들리고 깨지고 아파하고 구르며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최고의 길인 대자유인의 길에서 진정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림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저의 몸에서도 언젠간 수행의 향기가 배어 나오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몸과 마음에 익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고통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의 그림자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지니고 다니며, 방향을 잘못 들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달라이 라마의 '발원문'을 들려드리며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높아라, 부처님의 깨우침과
제자들의 수행력이여!
고해에서 헤매이는 중생들을 위하여
이법등이 널리 비추시길
시방의 부처님 전에 발원하나이다.

한 생명도 남김없이 열반을 얻을 그날까지
자신의 열반을 미루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발원하옵나이다.

나의 적도 무(無)로 돌아갈 것이며,
나의 벗도 무로 돌아갈 것이며,
나 역시 무로 돌아갈 것이니
만사가 무상하도다.
만사가 덧없음이어!

기뻐던 일도 모두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한번 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 법.

부처님도 남의 죄를 씻어줄 수 없으며,
남의 고통을 대신 덜어줄 수 없으며,
대신 깨우쳐 줄 수도 없나니
중생은 소직 진리를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나니
이것이 궁극의 진리이니라.
부디 전생에 쌓은 내 선업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멸할 수 있기를
발원하나이다.

녹음(綠陰)이 무지개빛 옷으로 갈아입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도 대중스님 여러분 정진 여일 하십시오! 🍁

『증도가(證道歌)』를 통해 본 돈오사상

태 범 / 사집과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1. 영가 현각스님의 생애
 - 2. 증도가의 의미
 - 3. 돈오사상
 - ① 돈오의 의미
 - ② 혜능스님의 돈오사상
 - ③ 증도가에 나타나는 돈오사상
- III. 결 론

I. 서 론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사들은 계송을 지어 저마다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깊은 선리(禪理)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오도송이 영가 현각의 증도가(證道歌)이다.

증도는 선종의 기본 사상서로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총림에서는 『신심명』과 『증도가』를 반드시 일과적(日課的)으로 외우라고까지 했다. 여래의 정법이 가섭, 아난존자로 이어져 조계의 육조 혜능선사까지 내려왔고, 육조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진 선종을 조계정

전(曹溪正傳)이라 하는데, 육조의 제자가 된 영가스님은 선종 사상 최고의 시문인 증도가에서 선사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돈오사상에 대해알아보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영가 현각스님의 생애

영가 현각(永嘉 玄覺, 675-713)스님은 중국 절강성 영가현에서 출생했고, 8세에 출가해서 오랫동안 천태교관(天台教觀)을 익혔다. 영가스님은 이미 『대반야경』을 열람하다가 활연대오하고, 『열반경』에서 묘지(妙旨)를 통명(洞明)하고, 『유마경』에서 간심(看心)을 발명하여 마하반야를 득력한 때에 동양 현책(東陽玄策)스님과 함께 조계산의 육조 혜능선사를 찾아가 문답 끝에 인가를 받았다. 처음 육조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석장을 짊고 육조스님이 앉은 선상을 세 번 돌고 그 앞에 우뚝 섰다.

육조:대저 사문은 삼천 위의(威儀)와 팔만 세행(細行)을 갖추어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도도히 아만을 부리는가?

영가: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육조:어찌하여 남(生)이 없음을 체험하여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않는가?

영가: 체험하면 남(生)이 없고 체득하면 빠름이 없습니다.

육조:그렇다. 네 말과 같다.

위와 같이 육조대사가 인가하니 대중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그때서야 영가스님은 위의를 갖추고 육조대사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드렸다. 육조대사가 말했다.

육조 :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 하는가?
영가 :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 :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영가 : 화상께서는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육조 : 네가 참으로 무생(無生)의 뜻을 알았구나!
영가 :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조 :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영가 :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육조 : 옳은 말이다. 하룻밤만 묵고 가거라.¹⁾

그 인연으로 후대 사람들은 그를 일러 '일숙각(一宿覺)'이라 불렀다.

이 일이 있는 후 스님은 영가현의 용흥사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각대사라고도 불려졌고, 시호는 무상(無相)이며, 탑호는 정광(淨光)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증도가』 외에 『영가집』 1권이 있다.²⁾

2. 증도가의 의미

'증도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증오(證悟)로서 근본을 삼아서 노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증(證)'이란 무엇인가?

구경(究竟)을 바로 체득함을 말한다. 깨달음에도 증오(證悟), 해오(解悟)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해오(解悟)란 견해(見解), 지해(知解)를 말하는 것으로, 알기는 분명히 알지만 실제로는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조스님도 처음에는 선가에서 전한 법을 해오(解悟)라고 잘못 보았다가 나중에 『간화결의론』, 『원돈성불론』에서 선(禪)이란 증오(證悟)이지 해오(解悟)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어째서 '도(道)'라 하는가?

도(道)란 구경(究竟)을 깨친 증(證)한 도(道)이지 중간적인 도(道), 해(解)한 도(道)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멸진정(滅盡定)의 무심도 아주 벗어나서 제8아뢰야식의 근본무명까지 끊어진 곳에서 구경각을 성취하여 대원경지가 현발한 것이며, 진여본성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歌)'란 무엇인가?

영가스님 자신이 확실히 깨친 경계를 노래로서 표현한 것이다. 영가스님이 육조스님을 찾아서 활연히 깨쳐 구경각을 성취하고 나서 그 경지를 시가(詩歌)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³⁾

이처럼 증도가는 철저히 선종의 공(空)과 무(無)의 철학을 선교(禪敎)로 회통하고, 다시 불교사상의 핵심인 중관과 유식에 이어 여래장 사상을 이끌어 철저히 공의 이념과 실천을 설명하여 돈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⁴⁾

3. 돈오사상

① 돈오의 의미

증도가에 나타나는 사상 중 가장 눈길을 끌었으며, 훗날 선객들에게 애송되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돈오(頓悟)'에 있다. 영가스님에게 있어서 돈오는 증오(證悟)인 동시에 무념(無念)이며 무생(無生)이다. 처음에는 천태지관을 닦았는데 주지하다시피 천태의 지관에는 선에서 말하는 돈오적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행법이다. 당시에는 혜능의 돈오선과 신수의 점수선이 크게 대립하고 있던 터에 영가스님은 천태의 지관을 버리고 혜능스님을 찾아가 돈오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선종사의

1) 광덕, 『법보단경』, 불광출판부, 1980, pp.274-275.

2) 선천(先天) 2년(713)에 입적하였으니 이는 스승인 육조대사의 입적과 같은 해이다. 세수(歲壽)에 대해선 『조당집(祖堂集)』 3권에서는 39세로 기록하고 있고, 『송고승전(宋高僧傳)』 8권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5권 등에서는 49세로 나타나 있다.

3) 『신심명. 증도가』, 해인사출판부, 1986, pp.80-82.

4) 중관: 가(假)가 곧 공(空)이고 공(空)이 곧 가(假)이다 라고 직관하는 것, 중도제일제관(中道第一諦觀)이라고도 함. 유식: 모든 존재는 오직 식(識), 즉 마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여래장 사상: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는 깨달음의 성질.

한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 대목이다. 따라서 증도가
는 이러한 영가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준다.

불법의 근본목표는 바로 생사해탈에 있다. 그렇
지만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범부중생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부처님
의 가르침도 8만4천 법문으로 시설되어 중생의 근
기에 따라 이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법을 닦아야
만 곧바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위로는 혜능스님에서부
터 오늘날의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돈오’라는
한 문에 의지해서 진여자성(眞如自性)을 바로 깨
쳐야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오’란 무엇인가?

‘돈(頓)’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앴어요, ‘오(悟)
란 무소득(無所得)을 깨치는 것이다. (頓者는 頓除
妄念이요 悟者는 悟無所得이니라.)

이것은 돈오의 근본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
서 망념을 없앤다는 것은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
까지 포함해서 모든 망념을 다 없앤다는 뜻이며,
망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단계
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을 알아서 시간
적으로 일찰나 간에 근본무명을 완전히 끊고 구경
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⁵⁾

② 혜능스님의 돈오사상

영가 현각스님의 『증도가』를 살펴보기 전에 혜
능스님이 내세운 돈오사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아보자.

혜능은 『돈오견성의 법문』에서 “나는 홍인화상

에게 한마디의 가르침을 듣고 말이 떨어진 그 즉시
깨달아 단박에 진여본성을 깨닫게 되었다. (我於
忍和尚處一聞言下大悟頓見眞如本性)”라고 하
는데 여기서도 견성은 본성(진여불성)을 보는 것
이며, 돈오의 돈은 언하(言下)가 얘기하듯 시간적
단계적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땅히 반야의
지혜로써 관찰하여 조건(照見)하게 되면 찰나 간
에 망념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곧바로
자기의 진정한 선지식이니 한 번 깨달으면 곧 붓다
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자성의 심지가 지혜로써
관찰 조건하여 안팎의 차별 없이 분명하게 밝아지
면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된다.

자기의 본심(불성, 자성)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
고, 해탈로써 반야정지(般若正智)가 체득되고, 그
것이 바로 무념(無念)이라는 것이다.⁶⁾

돈오는 번뇌 망념에서 불성을 깨달아 범부의 경
지를 단번에 뛰어넘어 佛心에 이르는 논리상의 초
월을 의미하는 말로써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을
모두 동시에 그것도 단박에 초월하는 대승불교의
실천구조이다.

③ 증도가에 나타난 돈오사상

다음은 영가 현각스님의 증도가에서 나타나는
돈오사상이다.

勢力盡箭還墜 招得來生不如意
爭似無爲實相門 一超直入如來地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내생에 뜻과 같지 않는 과보를 부르리로다.
어찌 조작이 없는 제법실상문에
한번 뛰어 여래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오.

‘일초직입여래지’는 선문의 관용구처럼 쓰이게
되는데 돈오적 사상이 얼마나 크게 확대되었는지

5) 『돈오입도요문론』, 해인사출판부, 1986, p.17.

6) 정성본, 『돈황본 육조단경』, 한국선문화연구원, 2003, pp.177-178.

를 말해주는 대목으로 누구든지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서 자신을 바로 닦아 나간다면 바로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마음을 깨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이 법을 믿고 선택해서 부지런히 닦기만 하면 금생에 한번 뛰어 넘어 여래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영가스님은 “만약 거짓말로써 중생을 속인다면 발설지옥에 떨어질 화를 자초한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으셨던가? ‘함이 없는 실상문’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뛰어 넘어 여래지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옛 성인들처럼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스스로 자아의 허물을 발견하여 본래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 물질로는 인간의 공허를 메울 수가 없다. 잃어버린 자기는 오직 자기의 심성 속에서 되찾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현대인은 문제에 얽매이고 남의 사상에 가탁(假託)하여 살려고 한다. 남의 사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남이 해지(解知)한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불교의 교설, 원증(圓證)세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교설이고 사상이며 착함이나 완성으로 이끄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그 세계에 스스로 잠입하고 스스로 증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선수행의 길이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길인 것이다.

Ⅲ. 결론

君不見 絕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法身覺了無一物 本源自性天真佛
五陰浮雲空去來 三毒水泡虛出沒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지성이 천진불이라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은 순리에 따른다. 결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다. 물이 흐르듯 여유롭고 거침없으며 막힘없는 경계, 그것이 깨달은 이의 모습이다. 이처럼 “증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감감한 밤중에 만난 햇불과 같다.”고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등대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것에 반야(般若)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 사실만 자각하면 곧바로 돈오(頓悟)이기에 오늘날의 우리들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에 임하여 바로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불제자라면 누구나 업력(業力)에 따르는 삶이 아닌 수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불제자들에게도 수행의 위대한 길잡이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❶

참고 문헌

- 광덕, 『법보단경』, 불광출판부, 1980.
- 『신심명, 증도가』, 해인사출판부, 1986.
- 『돈오입도요문론』, 해인사출판부, 1986.
- 원순, 『깨달음에 이르는 길』, 법공양, 2004.
-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해인사출판부, 1993.
- 성철, 『선문정로 평석』, 해인사출판부, 1993.
- 이기영, 『깨달음의 노래』, 한국불교연구원, 1996.
- 정성본, 『돈황본 육조단경』 한국선문화연구원, 2003.



전통 회화 중 불화, 단청, 벽화의 시대적 전개 양상

김호석 / 수묵화가

〈장천1호분 전실동측 천정받침 세부 - 보살상, 비천상, 연화문, 5세기 전반, 중국 길림성 집안 소개〉

한국미술에서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보다 크다. 전통회화에서 불교미술은 수묵화와 더불어 한국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불교회화는 비단이나 종이에 그리는 불화, 벽면에 그리는 벽화, 건물 내외 벽을 장식하는 단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각 시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시대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문헌과 화적

불교가 수용된 이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

국가로 발전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대거 포함되어 있고, 백제와 신라의 불교회화는 단편적인 화적과 문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벽화 중 5세기 장천1호분에 표현된 불공도, 불보살, 비천, 연화생과 쌍영총에 등장하는 공양행렬도, 그리고 고분 내부의 천정받침에 그려진 장식무늬 등에서 불교적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교의 영향과 함께 불화



〈쌍영총 현실동벽 세부 - 공양행렬도, 5세기 후반, 평안남도 용강 소재〉

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백제의 화적으로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7세기의 벽화 파편이 있다. 이를 통해 사찰의 벽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슷한 시기 고구려 지역 통구사신총의 인동당초문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원건축에서 단청장식의 시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구려의 무늬는 활발한 필치로 색감이 중후하여 힘이 실려 있는 반면, 백제의 무늬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부드럽다. 이러한 점은 두 나라의 문화를 대별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신라지역의 불화 역시 현존작품이 없어 고분에서 확인된 연화문이나 인동당초문 등을 통하여 그 자취를 짐작할 뿐이다.

신라의 불교회화는 통일 신라기에 들어와 이전보다 발달했다고 짐작된다. 삼국사기에 “일찍이 술거가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렸는데, 몸통에는 묵은 껍질이 비늘처럼 우툴두툴하고 가지와 잎이 구불구불 서려 있어서 까마귀, 술개, 제비, 참새들이 가끔 날아들다가 벽에 부딪혀 떨어지곤 하였다. 그린 지 오래되자 색이 바라고 낡아서 절의 승려가 단청을 다시 고쳐 칠한 다음부터는 새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기록을 통해 보면 당시 화풍은 사실성이 강한 묘사방식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리산 단속사와 분황사의 불화 등이 모두 그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굴암 등 크게 발전한 불교조각을 통해 볼 때 통일 신라의 회화도 크게 발전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 고려시대 불교회화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번창한 불교문화를 이룩한 시기이다. 특히



〈수월관음도〉

〈아미타 삼존도〉

사찰은 잦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원당으로서 불교미술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시대의 벽화로는 13~14세기 부석사 조사당의 범석사왕 및 수덕사 대웅전 벽화가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의 불교회화 중에서 고려불화만의 화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구주(九州) 경신사 소장 1310년 작 ‘수월관음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3~14세기 고려불화의 화법적 특징은 첫째, 고가의 금색과 진채를 즐겨 사용한 채색화로서 섬세·화려하다. 둘째, 각종 문양을 활용한 장식적인 아름다움에 있다. 셋째, 투명한 비단을 걸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월관음도는 완성도가 높아 고려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불화만의 특성은 조선시대 불화에서 사라진다.

고려불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그림으로 일본 동경 근진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14세기 ‘아미타 삼존도’를 들 수 있다. 아미타 신앙은 고려불화의 중심이다. 이 그림은 불보살을 배치하는 구도방식이 특징적인데 그것은 상하 이중구조이

면서 주존은 상단에 크게 표현하고 협시는 하단에 작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고려적인 도상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서 변화하게 된다.

☞ 조선시대 불교회화

조선시대는 승유억불정책이 채택되면서 전반적으로 불교문화가 쇠퇴하지만 조선시대만이 갖는 특유의 화풍으로 정착된다.

먼저 조선적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례는 15세기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 ‘아미타 삼

묘 방식인 가는 철선묘와 크게 다른 것이다.

조선시대 불화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양식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조선 후기 양식으로 명명한 이 시기는 도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먼저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서 영산회상도를 대형 그림으로 나타낸 괘불탱이 주목된다. 1684년 작 부석사 ‘영산회상도’ 괘불을 보면, 본존을 중심으로 보살과 나한, 사천왕 등이 배치되어 원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폭의 여백이 사라지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군도형식은 조선 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벽화〉



〈무위사 극락전 양류백의관음도〉



〈부석사 괘불〉

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초기에 조성된 무위사 벽화를 보면, 고려 불화의 여흔을 살필 수 있으나 무늬가 간결해지고 본존불과 같은 크기의 기타 인물 표현, 본존불의 무릎 아래에 있던 보살이 본존의 어깨 높이까지 위쪽으로 올라오는 등 조선전기 불화의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난다. 또한 무위사 후불탱화의 뒷면 회벽에 그려진 ‘양류백의관음도’를 보면 수묵인물화의 선묘풍이 뚜렷이 드러난다. 백의에 나타난 유려하면서도 힘찬 묵선은 고려불화의 선

기 불화의 특징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불화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로탱이 있다. 고성 운흥사의 1730년 작 의겸이 그린 ‘감로탱’의 예를 들면, 시대상을 회화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 구성 방식이 독특하다. 감로탱이 담보하고 있는 시각의 혼용과 서술적 표현 방식은 이전에 있었던 불화 양식과 다른 것이다.

조선 후기의 불화에서 또 하나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의겸일파 등 화승들이 계파를 이루면서 활



〈운흥사 감로탱〉



〈부석사 대웅전 단청〉

동했던 관계로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외에 조선초기 불화의 인물묘사에서 입술의 가로 간격이 좁고 작으며 붉게 칠하는 채색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다양하게 변모한다. 조선 초기의 불화에 사용된 안료가 맑은 채색이 주류인 반면 후기로 갈수록 두터운 진채기법이 사용되고 불화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사실 등도 시대를 구분하게 한다.

단청은 당시 불화의 무늬와 색채 감각의 변화에 따라 변모한다.

우리나라의 불화는 한국회화 전체에서 시대변화를 아우를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불화의 변화가 한국회화사의 변화이고 미술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불화는 한국미술의 특징을 대변한다.

불화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변화에 따라 뚜렷한 형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의 구도적 차이는 본존과 권속들의 배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비교의 차원보다 한국불화가 한국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미감과 만나면서 종교화로서 정착을 이룬 점은 중시해야 한다.

조선시대 무위사 벽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의 풍부한 채색화 기법을 사용하면서 수묵인 물화 풍이 가미되어 가장 조선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을 통해 전통회화의 발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㉔

〈용주사 대웅전 단청〉

이정표 찾아가기

- 34회 동문 중제스님 -

범 찬 / 사교과



들뜬 마음으로 일산 동대병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깨끗한 병원건물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특히 직원들이 공손하게 합장 반배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여느 병원과는 그 모든 것이 다를 것 같은 아주 특별히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운문사를 34회로 졸업하신 중제스님은 사시에불 시간이 다 되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후배님들이 왔다고 보살님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몇 번이나 부탁하셨다. 스님의 자상함에 약간은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마음 한켠이 푸근해져 왔다.

장군평 너머로 보이는 황금빛 들판에 잘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추수할 시기를 기다리며 뜨겁게 내리쬐는 가을볕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다. 그 사이로 틈틈이 날아와 여물어가는 낱알을 조금씩 먹어 치우는 참새 무리들! 묵묵히 견디며 나누어주는 저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닳아가야 할 삶의 자세 또한 저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은 채 설레는 마음만으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 새로운 길을 향해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선배스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출가 전부터 스님께서는 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히 행자 때나 강원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해인사 금강굴에서 출가해서 만 배 절을 여러 번 하고 나름대로 계행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지냈지. 과거를 떠올려 보면 참으로 잘 갖추어진 곳에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강원에 와서 오히려 힘들고 적응이 안 되었다며 특히 ‘대중이 소를 잡으면 소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다.

강원생활에서 힘들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문 밖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 오히려 나가는 도반들을 잡아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많아요. 대중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의 의견을 100%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으며 조금 양보할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인연의 흐름에 따라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수행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대병원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강원졸업 후 선방을 다니다가 은사스님과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포교활동이 지금의 병원에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겸손한 표정과 함께 해맑은 웃음으로 말씀하시는 스님의 모습에 맑은 향기가 느껴졌다.

일반인과의 만남에서 수행자로서 해주어야 할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학 때 전공한 사회복지 분야를 살려 아는 분의 추천으로 병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시며,

“처음에 와서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강물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이 막막했어요. 거의 병원건물만 지어진 채로 법당도 없고, 병원운영도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와서 한 일이라면 법당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탕화와 내부벽화 그리고 지금의 법당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일일이 뛰어다니며 챙기고 만들어서 법당을 조성하고, 게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직원들 관리였어요. 직원 불자회를 만들고 병원을 법인으로 만든 후, 직원, 교수, 불자, 간병인들을 위한 법회나 수계 산람은 물론 신규직원면접, 봉사활동까지 챙기고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고 있는 스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쏟아져 나오는지 참으로 신기했다. 아마도 스님의 깊고 넓은 원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행자라면 늘 공부를 해야 하지만 특히 잦은 법회 때문에 더욱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부처님의 경전을 꾸준히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늘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항상 준비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운문사 강원에서 가장 힘들고 바쁘다는 사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나로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제가 후배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요즘은 스님들도 멀티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새로운 의식의 전환, 변환, 확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주고,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소가 먹은 것을 천천히 되새김질해서 내어 놓듯 우리 수행자들도 받는 일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내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도전하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스님들이 서서 사회인들을 불법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실천과 수행이 여일하게 함께해서 먼저 간 스님의 발자국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경험 있는 선배스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에 새겨지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좁은 생각과 얕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했다. 나는 과연 어떤 원력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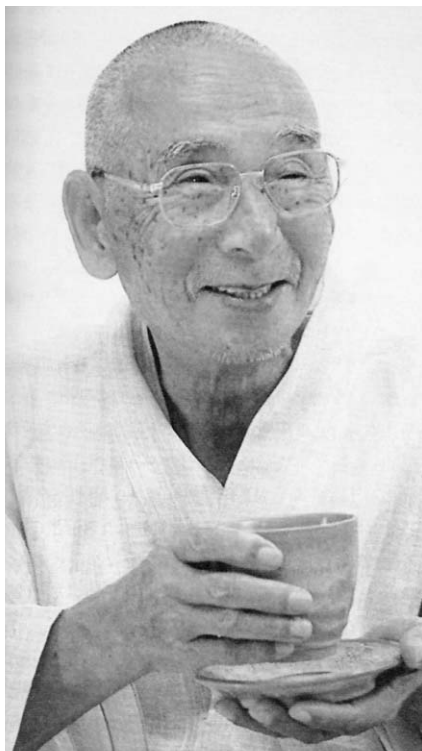
오늘도 진정한 지도자이며, 성찰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이들을 위해 먼저 새로운 이정표를 알려주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을 스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고 나면 눈뜨는 평범한 내 일상에 일침을 가하고 새로운 지침을 그려본다.

화사함보다 소박함으로 단단함보다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향해 새로운 열정을 쏟아 붓고 게실 그분께 작지만 아름다운 소국 한 아름 사들고 가서, 깊어가는 가을 속을 함께 거닐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본무생사(本無生死)

- 서암 큰스님 -

법 민 / 사미니과



썩둑 썩둑, 쓱쓱, 삭발을 하고 행자가 되었다. 내 마음 하나 깨쳐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그런데 절에 오니 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아 적응하기가 무척 버거웠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았고,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마치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이 길에 대해 너무 몰라서일 거라는 생각에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기회만 있으면 읽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불교 잡지에서 '서암 큰스님'의 사진과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냥 평범한 마음씨 좋은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맑디맑은 스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스님과 같은 맑은 눈동자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자 스님의 수행생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서암 큰스님은 고목에서 꽃이 피고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고 거북이가 나타나는 모친의 태몽 이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부친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함에 가족은 일찍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님은 신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스님은 성장하면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의문점에 대해 고심하며 여러 지식인들과 토론하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서약사라는 절에 계시는 노스님을 찾아 뵈었는데 노스님의 한 말씀, “지금까지 네가 보고 들은 것 빼 놓고 네 소리를 내 놓아 보아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바람이 불더냐? 아니면 하늘이 청명하더냐?”라는 답할 수 없는 물음에 스님은 출가를 결심하였고, 서약사의 노스님 밑에서 2년 반 동안 행자생활을 하며 사미계를 받고 화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좀 더 큰 뜻을 품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으나 힘든 유학 생활 속에서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폐결핵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아 일본 유학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생사를 뛰어넘고자 화두참선 정진을 시작했다. 금강산 마하연과 신계사에서 여름 안거

를 용맹정진하자 어느덧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지면서 병마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 스님은 더욱더 용맹정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가을이 되자 묘향산과 백두산 등지를 거쳐 다시 남으로 내려와 계룡산 골짜기에 있는 나한굴이라는 천연 동굴로 들어가셨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살아서 이 바위굴에서 나가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잠도 잊고 먹는 것도 잊은 채 선정삼매에 드셨다.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터져 나온 함성, "본무생사(本無生死)"

스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한갓 허공의 티끌과 같음을 확연히 깨달으셨으며, 쉬지 않는 정진력과 절도 있는 생활을 기반으로 화두를 드니 여러 수좌들로부터 귀감이 되었다.

어느 때에는 어려워진 종단의 중정자리에 천거되어서 많은 시비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였다. 또 지금의 봉암사가 수행인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여 수행자들이 용맹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든 분이기도 하다.

스님은 세수가 팔순을 넘었을 때에도 손수 공양을 지어 드셨는데, 제자들이 시봉하겠다고 찾아와도 바를을 문 밖으로 내던지시면서 "공부하려고 중이 되었지 남의 종노릇 하려고 중이 되었냐?" 하시면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곤 하셨다 한다.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번거로움까지 생각하시는 스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 있음이 느껴졌다.

스님의 입적이 가까워질 때 시자스님이 열반송에 대해서 여쭙니,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한 평생 사시고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할 말 없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달리 할 말이 없다. 정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라고 말씀하신 큰 스님은 입적에 다달아서도 '본무생사' 이셨다.

서암 큰스님은 평생을 참선하며 구도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선승의 대자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고, 지금도 스님의 자비심이 곳곳에서 향기처럼 발산되고 있다.

스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일단 출가한 후에는 이론으로 배우려 해서는 안 된다. 실제 행동을 배워야 한다.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따르고 배우면 차츰 환희심이 생겨난다. 율력과 심부름을 시켜도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어 시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살아 있는 공부다. 그런 후에 차츰 경전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마침내 정진에 힘쓰게 되는 것이니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머물어 간다. 그러면 어느덧 인생이 바뀌게 된다. 세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주와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혼자 미소 짓게 될 것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숙이 와 닿았다.

그저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마음으로 느끼기보다는 머리로 수행을 하려고 하니 풀리지 않던 것이 스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다 보니 점점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어른 말씀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했던 행동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졌다. 아직도 탐진치 삼독의 그물에 얽혀서 바르게 지도해 주는 선지식의 말은 뒷전으로 하고, 밝지 못한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 부끄러워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불보살님께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참회하고 또 참회한다.

어느덧 뜨거웠던 운문사의 여름은 가고 나의 머릿속을 식혀줄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오랜 세월 스님들과 함께 수행해 온 운문사의 은행나무도 서서히 노랗게 물들어 아름다운 황금부처님이 될 것이다. 나도 또한 부처님의 법대로 여여하게 수행정진하여 꼭 깨달음의 자유를 만끽하리라. 🍁

불교와 과학의 아름다운 만남 Ⅱ

청아 / 수원 공소사, 대전 자광사 주지

☞종교와 과학의 만남

불교와 과학의 만남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과학과 종교의 만남을 언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기독교이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이 기독교 문명권에서 잉태되었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이 현대문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세계의 현대문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비록 인류의 4대 문명권에서 벗어나 변방에 있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지만, 이러한 기독교 문명은 현대과학과 더불어 현대문명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공존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과학과 기독교의 만남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갈등과 반목의 상장이 되어버린 것을 언론의 관심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시대인 서양의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부른다. 종교가 가장 번성할 때 문명이 가장 쇠퇴하여 암흑기로 불리는 문명권은 인류 역사상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 이는 기독교 문명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번성한 기독교는 종교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중세를 연장시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중세의 사람들은 문명의 암흑기를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과정에서 과학과 종교의 만남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인지가 점차로 발전하면서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1630년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밝혀낸 것이 그 만남의 시초이다. 기독교의 천동설을 뒤집은 지동설은 말 그대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천체 중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믿은 태양에 신이 주재한다고 믿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인간의 기독교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져 신과 인간의 위치가 반대로 뒤집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기독교계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지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종교적 진리의 사실성(事實性)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두 번째의 만남은 19세기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간은 신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은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조상은 밀림의 원숭이이고, 인간과 같이 모든 생물체는 스스로 자연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생명체마다 창조되는 기독교의 창조론과의 해석이 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 이르러 유전공학의 발달로 유전자를 발견한 것이 세 번째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유전자는 인간의 모든 정보를 담아 다음 세대로 물려줌으로써 인간 형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의 발견은 창조론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진화론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였다.

네 번째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양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동물복제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일부 포유류 동물의 경우 임의의 체세포를 난자핵과 치환하여 배양하여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을 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체세포 치환에 의한 동물복제의 성공은 기독교의 창조론에 바탕을 둔 생명관의 해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동물복제의 기술이 인간에게 확대 적용된다면 창조론의 사문화(死文化)에 더 이상 지성적인 변론이 불필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불교와 과학의 만남

과학과 기독교의 만남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는데, 불교와 과학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불교계가 과학에 접근한 경우를 살펴보자. 불교 승려나 불교학자가 간혹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과학을 불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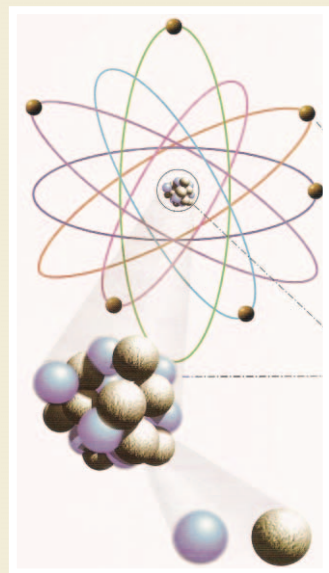
그러나 과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어 정밀

한 학습이 필요하고, 또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과학 장비들으로써 실험되거나 관측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 과학자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과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불교의 적용이 용이한 불교학자들에게는 과학의 이해는 더욱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부처님과 같은 혜안을 갖춘 선지식들이 과학을 불교적으로 접근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 더 정밀한 사례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계가 불교에 접근한 경우를 살펴보자. 과학자가 출가 승려가 되거나 재가불자 과학자들이 과학을 불교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개인들의 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례라고 한다면,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혹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 시대적인 배경은 인도의 불교문헌들이 영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번역되고 또한 연구되어 유럽의 지성사회에 소개되었던 것과, 유럽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저술활동에 불교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지성사회에 널리 보급된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과학자들이 불교에 대하여 학문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양자역학(量子力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이 과학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논쟁이 계속되는 무렵이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이 이론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쟁을 거치면서 과학자들에게





이 이론이 수용되어 가는 무렵이라고 추측되어진다.

더구나 입자물리에서 발견되는 소립자들의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관심을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학 내부적인 이유 이외에 외부적인 요소는 더욱 적극적이다. 현대사회에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의 대안으로 불교의 사상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 외적인 요소도 과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불교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과학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의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은 인간의 욕망이나 목표가 덧없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연과 인간 사유세계의 숭고함과 경이로운 이치를 느낍니다. 인간의 존재는 자산을 일종의 감옥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우주를 하나의 심오한 전체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중략) 불교는,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훌륭한 저술로부터 불교를 배워왔듯이, 우주적 종교 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적 천재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 감각으로써 구별되며, 거기에는 교리(敎理)나 인간의 상상이 만든 神이 없으므로,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없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신(神)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자연세계와 정신 세계를 모두 포괄하면서, 물질적 자연세계와 정신 세계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적인 감응과 이러한 세계들을 포괄하는 의미 있는 단일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불교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입니다. 만일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입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불교관은 물질세계와 정신 세계를 하나로 포괄하되 합리성을 잃지 않으며,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경험 또한 타당하게 수용되는 것이다. 미래에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우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상충되지 않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것이다. 즉 불교는 과학이 충분히 수용되어져 있는 상태의 종교라고 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위의 인용문에서 밝혔듯이 불교를 쇼펜하우어의 저술로부터 익혀온 것이라고 하였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의 불교적인 영향은 개인적인 종교적 성향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당시 지성사회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초기에 그의 유명한 “하느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양자역학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그의 개인적인 깊은 신앙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간 것은 자신의 특수상대성이론의 결과로써 시간과 질량 그리고 길이와 같은 기본 물리량이 절대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었고, 또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연구가 깊어지면서 우주 내의 시공간과 물질의 분포가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음으로 우주 내에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초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자역학의 초기에 상보성의 원리를 창안하여 양자역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보어(Niels Bohr)는 “하느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아인슈

타인의 양자역학에 대한 비판을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고 하면서 선두에서 아인슈타인의 비판을 막아내면서 양자역학의 인식론적 문제를 풀어갔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아인슈타인과의 비판이 종교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면서, 양자역학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갔다. 그는 “우리는 부처나 노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일찍이 부딪혔던 인식론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동양인 과학자들에 의하여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의 물리학자 유가와와는 1935년 중간자를 제안하였고, 그가 제안한 중간자가 실제로 발견됨으로 이러한 관심의 시초가 된다. 과학자들은 유가와(Yukawa Hideki)의 발상 즉, 핵자들이 중간자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핵력이 발생된다는 그의 발상은 매우 동적 이면서 새로운 견해라고 인식한 것이다.

또한 1961년 겔만(M. Gell-Mann)과 네만(Y. Ne'eman)은 일본의 물리학자 사카다의 입자분류 모형을 연장시켜 소립자군을 여덟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면서 ‘팔정도’라는 어휘를 물리학에 사용하였다. 물리학자 추(G. F. Chew)는 1970년 붓스트랩(Bootstrap) 이론을 창안하여 동양적인 개념을 물리학의 이론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동양인 과학자들의 새로운 견해가 성공적으로 과학에 적용되자 일부의 과학자들은 입자물리의 현상들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해답을 동양과 불교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1974년 카프라(F. Capra)의 『붓스트랩과 불교(Bootstrap and Buddhism)』라는 논문이 물리학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다. 그는 이후 1975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으로 번역된 『물리의 도(The Tao of Physics)』를 출판하여 세계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그와 유사한 출판물들이 연이어 출시됨으로써 비단 과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소위 신과학 혹은 신과학운동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과학운동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벗어나 전일적인 관점을 주장한다. 정량적인 해석에 치중한 서양의 과학정신과 유기체론적인 관점의 동양사상과의 발전적 통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불교와 과학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우주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실상(實相)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어떻게 하면 여실히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곧 자연과학의 화두(話頭)로서, 인류의 지성사와 함께 탐구되어 왔으며, 수많은 종교와 철학, 혹은 사상과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의문에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고자 인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인의 한 방편으로써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현대과학과 함께, 문제해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불교가 더불어 주목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불교와 과학, 이 두 분야가 시공간을 넘어서 만나게 되고 만나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점점 확대되어 불교도 과학도 아닌 그러나 불교 아닌 것도 아니고 과학 아닌 것도 아닌 새로운 분야로 탄생되는 과정을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불교와 과학의 만남의 단계는 초기 단계로, 불교수행의 정신적 영향을 의학적·심리적·영적·철학적·종교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측이 비교적 용이한 의학이나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학 분야가 주를 이룬다. 점차적으로 이들의 연구가 결실을 맺게 되면, 이들 과학 분야에서 좀 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분야로 그 만남이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만남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불교계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대화의 노력이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양 분야의 상호접근이 이루어져 불교의 과학적 이해와 과학의 불교적 이해가 학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불교의 세계관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기세간의 구조와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은 비록 언어의 표현차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자연관과 마찬가지로 현상세계를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찾아내어 자연과 우주의 구조와 현상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은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의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교는 과학의 현대적 언어와 방법론을 수용하여 불교의 세계관을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하여 인류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불교의 세계관은 불이(不二)의 사상으로 물질과 정신이 둘 아님을 강조한다.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며, 정신의 세계에서 물질세계를 자재함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신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크게 강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만약 과학이 불교의 세계관을 통하여 불교와 과학이 각각의 자연관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를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가 점차로 확대된다면 과학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그 방법론 즉, 불교수행을 과학

의 타당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러할 때 불교와 과학이 불교수행의 방법론으로써 회통하여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하는 불교가 지향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인류는 현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팽배한 총체적인 위기를 심리적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을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불교는 교화의 현대적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불교의 응용성을 높여갈 수 있고, 과학은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불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불교의 방법론 즉 불교수행을 원용할 때 과학의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우리는 동양의 정신문화의 핵심인 불교와 서양의 물질과학의 중심인 현대과학이 서로 만나 정신과 물질이 마치 인간의 몸과 마음처럼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쳐 보았다.

불교와 과학의 만남의 필요성은 인류에게 제공된 물질적 자원이 유한함에 있다. 유한한 물질적 자원은 아무리 아끼고 나누어 사용하여도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질에 의한 인간의 정신적 충족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할 때 인류의 끝은 지성인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은 무한한 정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인간의 정신적 충족이 만족되면서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되는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희망과 책임이 과학과 불교의 만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과 불교의 만남은 21세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

이 글은 청아스님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와 현대물리학의 세계관 비교연구』(2006)에서 발췌하여 보내주신 원고이며, 스님의 동의하에 각주를 생략했으며, 내용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괄호로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란 도반

서주/사미니과

하나됨을 위하여

지 연 / 사집과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물러나고 산들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지금, 지난여름에 있었던 '생명과 평화의 시국법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 법회의 이슈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종교편향, 국민의 주권 수호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자세를 촉구하며,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참회를 위한 시간이었다.

법문과 함께 발원문 낭독, 108배 참회, 문화행사 등의 순서로 3만여 명의 재가자들과 함께 법회를 열고 촛불집회로 마무리한 그 일은 오래두고 많은 것을 되새겨 보게 하였다. 그 이후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따른 참회와 시정을 촉구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이 '사람과 생명,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는 '오체투지'로 써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각 시대 각 나라마다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중국의 유학자 왕통(王通)은 『중설(中說)』이라는 저술에서 “『시경』과 『서경』 등이 성행하던 태평한 세상이 멸한 것은 공자의 잘못이 아니며, 화려했던

진나라 황실이 혼란에 빠진 것은 노장의 잘못도 아니다. 재계를 닦던 양나라가 망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도가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유·불·도 삼교는 각각 모두 통치에 필요한 것으로 그 도가 결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삼교의 가르침을 융합시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서로 고쳐서 통하게(通其變)한다면 천하에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대통령이란 중차대한 임무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종교를 인정하고 치우침 없이 모든 종교를 껴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비판하기보다는 참회하고 개개인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시국 참여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탈종교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종교인의 절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런 사람 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친 종교편향정책을 쓰는 현 정부는 지혜로운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뿌리는 국민이다. 뿌리를 모르면 교만해져 쇠퇴하고 뿌리를 알면 겸손해지고 변명하는 법이다. 그래서 뿌리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동산 양개스님이 세간을 널리 교화함으로써 초기 비판적 은둔주의를 버리고 현실사회에 뛰어들어 민중과 함께 호흡하였듯이 종교가 분명히 사회제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 어떠한 종교나 종파도 시대상황으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다. 다만 종교의 정치적 관심은 최소한 자기 교리에 입각한 사상과 논리를 갖춘 정치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을 버리는 일 없이 천변만화를 수용하면서 더 붙어 사는 삶은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를 겸비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취하고 다른 한쪽은 버리게 되면 이치와 현상이 어우러져서 돌아감(理事兼帶)에 있어 원만한 현실 수용이 불가능해진다. 동산 양개스님은 현묘한 선리(禪理)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활동은 하되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지만 자취 없이 비추며 사법(事法)과 이법(理法)에 다같이 밝아 본체계와 현상계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시국법회와 범불교도대회는 왜 시작된 것일까? 승속을 막론하고 함께 자리했던 수많은 인과와 편견 없는 정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참회와 발원의 말, 호외신문, 플랜카드 등은 다 무엇을

위하고자 하는 목소리였던가?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인성이 상실된 이 시대를 아파하며 이웃과 자연을 내 몸처럼 여기며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는 길이라며, 참회와 기도의 길 위에서 나를 가장 낮추는 몸짓인 ‘오체투지’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에서는 수경스님을 중심으로 내년 3월 말부터 계룡산 중악단에서 시작하여 천안 → 서울 광화문 → 임진각을 지나 묘향산까지 오체투지으로써 우리의 국토 사랑을 표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온몸으로 이 땅의 소리를 듣고 느끼며 국토와 내가 하나 되고, 국토와 부처가 하나 되며,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10인 10색이란 말이 있듯이 제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됨’이 아닐까? ‘화합’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장 간절한 참회요 기도이며,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때의 그 시간을 회상하며 나도 나를 낮추는 수행을 실천해 보리라 다짐해 본다. 나와 너가, 정치와 종교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되는 그 날을 위하여!





나는 습관이다

이 문재 / 시인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한 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무릎을 쳤다. 그랬다. 나는 습관이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방법이 바로 나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좋은 습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일 한 시간씩 걸으려고 하지만, 아직 습관이 되

지 못했다. 술과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 남을 도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훨씬 많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끄고’ 싶어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소용돌이친다.

다행스럽게도, 내 주위에는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한 친구는 ‘선물광’이다. 만날 때마다 뭔가 손에 쥐어준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천하의 백수인데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한다. 책, 엽서, 초콜렛, 꿀, 연필 등등. 친구의 커다란 가방에서는 늘 뭔가 나온다. 그 친구한테서 배웠다. 선물은 마

음이었다. 선물하는 습관은 지갑의 두께와 무관했다.

다른 한 친구는 남을 돕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돕지 않는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따진 다음, 도울 수 없을 경우, 그 자리에서 돕지 못하겠다고 잘라 말한다. 반면, 도울 수 있을 때는 끝까지 돕는다. 자기 일처럼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든다. 그 친구는 “돕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돕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도중에 돕기를 그만두면 기왕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었다.

두 친구의 좋은 습관-남을 돕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습관보다는 기질이나 성격, 의지가 적절할 것이다-을 배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아직 몸에 배지 않았다. 한때 만년필이나 볼펜 같은 필기도구를 건네주는 버릇이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은, 내가 쓰던 것을 선물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몽블랑이나 워터맨 같은 명품이었다는 것이다. 받는 쪽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선물하는 자리가 술자리였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에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도움을 받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모두 밖에, 위에 있다. 선생님이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대학교 은사로부터 전수받은 ‘선물하는 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가령 철수에게 만년필을 선물한다고 할 때, 만년필 케이스 안에다 ‘철수는 만년필이 필요하다’라고 써놓는 것이다. 철수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부담감을 털어버린다. 설령 만년필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갑자기 만년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선물하는 쪽보다 선물을 받는 쪽의 입장이 강해지는 것이다.

‘OO는 OO이 필요하다.’라고 써서 선물하는 습관은 이내 몸에 뱀다. 직장을 잃고 어깨가 축 늘어진 후배에게 용돈을 건네줄 때는 이렇게 쓴다. “OO은 술값이 필요하다.” 밥 사먹을 돈조차 없는 가난한 학생에게 봉투를 쥐어줄 때는 봉투 겉에다 “OO은 책값이 필요하다.”라고 쓴다.

나쁜 습관은 저절로 들지만, 좋은 습관은 절대로 저절로 몸에 배지 않는다. 나처럼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에게는 새로 들여야 할 좋은 습관이 따로 있지 않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새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내가 버리고 싶어 하는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늦게 잠드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 것인데, 만만치가 않다. 일찍 자려면 삶의 패턴을 전부 재조정해야 한다. 습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고치기 어렵다. 작은 습관 하나에 삶의 전부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정신이다. 습관을 고치는 삶,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나는 습관이다. 습관이 바로 나다. 🍎

이문재 님은 1959년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시운동』 4집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 호텔』, 산문집 『내가 만난 시와 시인』이 있으며, 김달진문학상(1995년), 소월시문학상(2002년), 지훈상(2005년) 등을 수상했다.

‘공부’라는 게 뭘까요?

-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법인스님을 뵙고 -

금 룬 / 대교과



삶의 매순간순간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 어느 작가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선택
에서부터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生)이라는
망망대해의 출렁거림 속에서 끊임없이 취(取)와 사(捨)를 반복하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 그 중심에,
우리가, 내가 서 있다.

버스를 세번씩이나 갈아타고 내려서 여느 산중
의 절처럼 산 중턱 어디쯤 있겠지 했던 실상사
는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200m 앞에 있었다.

학장스님은 동자승같이 단아한 모습이었지
만 말씀과 행동은 차분하면서 절도가 있고 위엄
이 있었다.

“여태까지 수많은 책을 보고 읽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힘을 얻은 경전 구절이 있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나는 이렇게 감동 받았고 또 나름대로

부처님의 뜻을 알 것 같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악 한 모금 마신 차가 탁,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많은 글들을 보고 또 보아왔는데
그 순간 딱히 자신있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머쓱한 웃음으로 넘어
가려는 우리에게 연이어 묻는 질문들은
너무나 빈약한 나의 살림살이를 여지없이 들여다보
게 했다.

“‘공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공부한다’
하는데 어떤 게 공부예요? 책 보는 게 공부니까?
부처님 경전 열심히 보고 이해한다, 이게 공부일
까요? 좌선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도 하고, 일반인
들도 ‘스님들 수행한다, 공부한다’ 하기도 하고,
중물들인다고 해서 절에서 습의, 규칙 등을 배우
는 것을 공부라고도 하는데…, 어떤 게 정말 ‘공
부’예요?”

절집에서의 공부는 뭔가 세상과는 다를 거라는
명분 아래 나름대로 읽어도 보고 외워도 보기를 몇
해. 수많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들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 공간과 나의 말과 행동과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공부 따로 수행 따로가 맞는 말인가요? 그럼
일상생활과 수행은? 수행하면 수행자는 행복해
야 하잖아요. 수행할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야 하고
여유로워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안목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
의 목적은, ‘왜 출가했느냐’ 이것부터가 중요한데
흔히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자기 존재의 실상이 어떤 것인
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놓쳐서
는 안 되는 것은 일상언어로 말해서 인격의 완성
이란 면을 결코 놓쳐서는 안돼요. ‘깨닫는다, 성불



한다, 한소식한다’ 이런 말에 너무 지배되어서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전인적인 요소, 전인격적인
요소들은 너무나 도외시되고 있어요. 상식과 교양
을 저버리고 인격의 완성이 될까요? 수행은 완성
의 의미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격의 완성이라
고 봐요.”

학장스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유유히 떠다니는
우리들의 조각배를 떠올렸다. 시종(始終)을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떤 것
을 길잡이로 해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대한 연
민과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수행
의 출발점은 연민과 사랑, 곧 발심(禮
敬心)과 참회심(懺悔心) 없이 어떻게 수행합니
까? 요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불
교사에 있어서 ‘사람’이란 개념이 있었을까? ‘사
상이다, 수행이다. 출가승단이다, 깨닫는다’는 테
두리 속에서 불교역사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불
교신도들까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불교신도
가 아닌 모든 인류중생, 사람의 문제를 기본적으
로 고민하고 살았던 역사가 있었을까? 사람의 문
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불교 경전을
해석한 역사가 있었을까? 사람을 보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사람 사는 사회를 이상에 맞게 만들겠
다는 소신을, 안목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교했을
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아직은 문제제기 수
준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만 초심자 때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논(論)하지도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식과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관심을 갖지 말란 말을 잘못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라고 하는 지혜와 자비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물론 초심자 시절에는 과정이 있고, 활동할 때는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늘 고민과 안목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봐야만 좋은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에 경계를 두면 안 돼요. 경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외전이라면 외전이라도 기꺼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발에 신고 있는 흰 고무신의 작은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 끄덕거리던 나는 그 고무신만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옷을 입고 삭발하고 세상 속 한 인간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여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란 단어가 참 오랫동안 머릿속을 울렸다.

“요즘 학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쓰다 보니까 기능도 편리해지고 정보는 많아지고..., 그 기능과 정보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지혜의 힘은 사유에서 나오거든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사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늘 ‘체제불학(體系佛學), 체제수학(體系修學)’을 권장해요.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하자, 체제 불학. 수행도 체계적으로 하자, 체제 수학, 체제 수행이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부처님의 사상이 뭔가, 부처님의 사상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진리를 알려고 할 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했으면 해요.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아함경[니까야]을 바탕으로 교과적으로는 아비달마, 빈야사, 유식사상, 화엄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경전과 어록을 읽었다면 기초개념이 잘 잡혀서 수월하죠. 우리는 관

념적 백과사전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단계적·체계적 텍스트(Text)를 정해놓고 면밀하게 읽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제각각 불교는 하지 말아야죠.”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았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대상 속에서 일어나죠. 수상행식(受想行識)이 어디서 일어나요? 늘 사람하고 말하고 보고 생활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들의 감정이 형성되고 의도가 형성되고 관념이 형성되는 건데, 그 속을 떠나서 어떻게 수행을 찾아요. 이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포교의 영역이고, 경전 보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것은 수행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확률이 많아요. 물론 고유의 영역은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합쳐져요. 십우도(十牛圖)에서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자꾸 완벽

하게 완성해 놓고 들어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성될 때까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인연 끊고 살 거예요?”

수행이 결코 세상에서 분리된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길 말씀 속에서 계속 내보이시는 스님의 나침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을지….

“수행을 염불, 간경, 참선, 주력, 이런 방법 속에 서만 항목화해서 따로 수행을 찾지 말았으면 해요. 수행은 결과로써 나타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등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친절한 마음이 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공부 점검하고, 그렇게 또 마음 쓰고 행동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수행 못 해요. ‘나는 이런 습관을, 단점을 갖고 있다’면 인정하고 고치도록 해야죠. 감정의 정화 없이 견해의 정화는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대접 받는 수행자가 아니라 체제 불학, 체제 수학 [수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과 존경, 헌신, 배려, 이런 쪽으로 코드를 좀 전환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얘기를 나눈 결과예요.”

30년을 넘게 수행자로서 살아오신 결과리라. 나는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흔적을, 어떤 결과를 말하며 이 시대를, 그 때의 세상 속 사람들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을까?

“비구니 스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부(丈夫)의 기개(氣概)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장부라는 것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가인의 기상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열리고 기운찼으면 좋겠어요. 세계 불교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종교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으

면 좋겠어요. 현존하는 세계 종교 속에서 여성 수도자의 위치와 역할을 좀 더 넓혀줬으면 해요. 또 세계가 양성평등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수동적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사람’을 중심에 둔 그러한 불교적 역할을 함으로써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확보하고 영역을 넓히고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차별적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관습과 습관적으로 차별적인 면이 남아 있지만 각 계에서 능력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그것이 양성평등의 자연스런 문화로 자리 잡아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이제 조금씩 둘러봐야 될 것 같았다. 주변을 먼저 보고 멀리 봐야 지금의 내 모습이 확실하게 보일 테니까.

“예불하고 예경하는 게 마땅히 옳고 참 좋은 것이다, 스스로 의의와 가치를 알아서 수증하고 취지와 명분을 인정해서 사상을 바로잡고 견해가 고쳐지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물이지, 어떤 것을 경험했다, 특수한 전통적인 관습과 규칙을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안다, 이것이 중물일까요? 레크닉은 지키고 실지 생활 속에서는 딸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칠 게 있으면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출가한 지 몇 해 안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또 앞으로 변할 것이다. 그 변화의 바람 속을 나는 ‘출가승’이란 중심 뜻대로 헤쳐나가려 한다. 어제의 미래와 내일의 과거인 오늘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이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머리 깎은 중노릇의 단역배우 역할을 이 생(生)에서 한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일까? 바로 끝없는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 🍃

짧은 여행, 긴 그리움

- 졸업여행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성 호 / 대교과

✧ 9월 27일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인도 땅 뭄바이에 발을 디뎠다. 가슴을 누르는 습기와 더위, 공기 중에 향신료가 떠다니는 듯한 독특한 냄새, 수많은 노숙자들과 떠돌이 개들, 쓰레기를 뒤지는 소들 ... 아, 인도구나! 싶었다.

호텔 방에 들어오니 새벽 3시가 가까웠다. 당일 엘로라 석굴까지 가려면 씻고 짐 정리 하고 거의 바로 나와야 했다.

늦은 오후 도착한 엘로라 석굴은 매우 아름다웠다. 운문사의 한여름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너무도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과 수많은 승방들, 부드러운면서도 엄숙한 부처님의 상호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10번 굴에서 인도에서의 첫 예불을 올렸다. 소리의 공명을 고려해 지어진 천장 덕분에인지 우리의 예불소리는 더욱 장엄하고 우아하게 울려 퍼졌다.

✧ 9월 28일

아잔타 석굴을 둘러보았다. 사암도 돌인데 어찌 저리 섬세하게 다듬었을까. 석굴암 부처님을 연상케 하는 고요한 불상(佛像)의 미소는 자꾸 내 발을 묶어두려 했다. 그러나 넘치는 신심으로 기도를 오래한 탓에 찬찬히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8시 30분에 출발하는 보팔행 밤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부사왈 역으로 가야했다.

요즘 인도 열차표는 모두 인터넷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좌석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는 2,3등석 칸에 이미 드문드문 인도인들이 타고 있었다. 좁은 침대칸에서 짧은 인도 남자와 마주보고 약 7시간을 누워 가야 했던 모스님은 낯밤을 새웠다고.



※ 9월 29일

우리가 밤기차를 탄 건 산치대탐을 보기 위해서였다. 광대한 사원의 터에 혼을 다한 조각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섬세하게 표현한 대탐. 부처님을 생각하는 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부처님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산치대탐을 나와 아그라행 열차를 탔다. 관광객이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시설이 좋다는 특급 열차.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과 풍부한 기내식 덕분에 비둘기호 정도의 속력에도 지루함 없이 여행할 수 있었다.

어느 것 하나 빨리 움직이는 것이 없는 이 곳. 사실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거나 지체로워지는 건 아니다. 이 느낌 속에서 인도인들은 모든 것을 더 '잘' 보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9월 30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타지마할을 보는 날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궁전은 참으로 눈부셨다. 타지마할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더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관광객들. 우리는 거의 포토라인을 세우다시피 하고 사진촬영에 응하며 잠시 한국 사미니의 위의를 뽐냈다.

샤 자한 왕의 애절한 사랑이 느껴져서인지, 한 권력자의 집착으로 인해 희생되었을 무수한 생명 때문인지, 아니면 그 신비에 가까운 아름다움 때문인지, 돌아보는 내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

오후에 본 아그라성에서는 이슬람 무굴제국 왕족의 강한 권력과 화려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때마침 피부는 소나기로 깨끗하게 씻긴 붉은 성체(城體)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비가 그칠길 기다리며 숨 가쁘게 진행된 여행일정에 잠깐 쉽표를 찍는 한적한 시간을 보냈다.

※ 10월 1일

진정한 성지 순례가 시작되었다. 부처님께서 평생 유행(遊行)하신 곳을 단 일주일에 다 돌아보아



했다. 인도 대륙의 반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버스여행.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해 도리천에 올랐다고 하강하셨다는 곳, 상카시아였다.

상카시아의 스투파는 아직 발굴 전 상태로 대부분 흙으로 덮여 있었고, 힌두교와 불교간 주도권 다툼 때문에 스리랑카 스님 두 분이 의자에 앉아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셨다. 폐허와 같은 곳이었지만 우리의 신심 어린 예경으로 인해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긴 버스길에 올랐다. 무변광대한 초원. 간간이 집 몇 채와 뜨거운 태양 아래 진흙탕에서 목욕하는 소들만 눈에 띄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현지인처럼 대자연을 정량으로 이용해야 한다.

처음 “화장실 가세요~”하며 차를 세워준 곳은 거칠 것 없는 너른 평원에 갈대만 듬성듬성 나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잠깐 주저했지만 곧 가리개로 쓸 3단 우산 하나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연약한 갈대 몇 줄기에 우리의 몸을 다 가렸다 생각하고 불일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타고 가던 자전거까지 멈추고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인도 남자 한 명과 사내에 4명과 마주쳤다. 똑같은 차림으로 일렬로 앉아 불일 보는 모습이 신기했었나 보다. “나마스떼!” 우리의 당황스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반갑게 인사하는 그들에게 우리도 웃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 10월 2일

버스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그라에서 꼬박 이틀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사르나트 녹야원. 드넓



은 정원엔 사슴 대신 개들만 뛰놀 뿐이었지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처음 설법을 하신 곳이라 그런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 주변을 돌 땀 몸 전체에 백만 볼트의 전기가 오르는 듯했다.

✧ 10월 3일

‘영적인 빛이 넘치는’ 3천 년의 고도(古都) 바라나시.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좁고 지저분한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걸어 이른 아침 갠지스강에 도착했다.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얼마 전 큰 비가 내린 탓에 강은 매우 깊고 넓고 물살이 썰다. 강 건너편에 있어야 할 항하사 모래밭은 물에 잠겨 있었고, 우리를 태운 배는 힘겨워하며 앞으로 나가질 못했다. 수질보호정책으로 이제 화장하지 않은 시신은 강에 띄울 수 없다 했지만, 죽은 소 한 마리가 우리가 탄 배 옆으로 둥둥 떠내려 왔다.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장터로 강물에 적신 시신을 싣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어린 아이들은 타고 남은 나무에서 숯을 골라내고 있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서원을 담은 꽃 접시를 띄웠다.

오후에 도착한 곳은 위없는 깨달음의 현장, 보드가야였다. 짐승 같은 더위 속에 발바닥이 델 정도로 달구어진 사원을 맨발로 걸어 마하보디 대탑 뒤 보리수 아래서 예경하고 기도했다. 108배로 부족한 스님들은 저녁공양을 반납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중인 각국 스님들 틈에 끼어 천 배의 절을 올렸다.

✧ 10월 4일

곳곳에 유실된 도로 탓에 천정에 머리를 부딪칠 정도로 흔들거리는 버스를 타고 도착한 나란다 대학. 용수, 제바, 무착, 세친, 현장 스님 등 쟁쟁한 인물들이 수학하였던, 한 때 1만 명의 학인과 2천 명의 교수진이 있었던 세계 최고의 대학답게 그 혼적

도 웅장했다.

시간에 쫓겨 아름다운 죽림정사 터는 잠시밖에 둘러보지 못했다. 해지기 전에 범화경의 설법장, 영축산에 올라야 했다. 멀리서 보기에 산이라기보다 언덕에 가까운, 사리암보다 낮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오르자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정상 가까이에 이 산의 이름을 짓게 한 독수리 모양의 바위가 보였다. 이 평범한 산꼭대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휘감긴 듯한 광활함. 헤프지 않은 시원한 바람은 가슴 속 번뇌까지 다 씻어낼 것 같았다. 바로 얼굴 앞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았다.

✧ 10월 5일

버스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달렸다. 이 띄약별 아래 걷고 또 걸으셨을 부처님의 모습과 2500년 전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땅 바이살리는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사탕수수가 빼곡히 자라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 소가 똥구는 진흙탕에도,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곳에도 흰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파괴되지 않은 아쇼카 석주를 처음으로 보고, 또다시 종일 버스를 타 해질녘에야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에 도착했다.

열반당에 가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린다면, 문단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관리인 앞에서 급하게 예불만 올리고 나오는 바람에 마음을 가라앉혀 머무를 시간도 없었다. 아쉬움 속에 열반당에서 또 하루의 해가 졌다.





✧ 10월 6일

부처님의 다비터에서 새 날을 맞이했다. 가라앉은 안개 탓일까. 마음도 따라 숙연해졌다.

버스로 7시간을 더 달린 후 기원정사에 도착했다. 버스 타는 일엔 이력이 붙어 이제 7시간 정도는 '잠깐'으로 느껴졌다. 벌써 인도 사람들의 시간관념에 동화된 모양이었다.

부처님께서 19안거나 지내시며 금강경도 설하셨던 곳. 비록 혼적뿐이지만 아름다운 그 곳에서 공양하고, 정진하고, 쉬고, 포행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 자취를 그려보았다.

앙굴리마라 스투파와 수닷다 장자 집터를 잠깐 거쳐 쉽 없이 달려도 네팔 국경 너머 룸비니에 있는 한국 절, 대성 석가사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 10월 7일

석가사에서 도량석, 쇠송, 새벽예불을 올리고 스님께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아침공양을 했다.

경주 황룡사를 그대로 본뜬 불사가 10여 년째 진행 중이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멀리 보인다는 히말라야 설산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 있었고, 대신 안개에 잠긴 룸비니 평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하늘, 땅, 구름, 산.... 온 대지가 명상에 잠긴 듯 온통 고요뿐이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는 참 평화롭고 안온한 곳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아쉽게나마 모두 돌아본 우리는 설산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히말라야 트레킹의 도시, 포카라로 향했다.

✧ 10월 8일

여행의 피로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눈이 떠졌다. 무심코 창밖으로 눈길을 던지니 그 곳에 설산이 우뚝 서 있었다! 늦은 밤 호텔에 들어와 히말라야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반스님을 깨워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막 솟아오르고 있었다. 선명한 붉은 해에 빨갛간 보석처럼 빛나는 설산. 그리고 투명한 공기 속에 새벽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신선한 태양!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다.

네팔은 인도와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인도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에 도착한 우리는 스와얌부나트 사원에 참배하고, 우리나라 이태원 거리와 같은 타멜거리를 돌아보며 멋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 10월 9일

이국땅에서의 마지막 해맞이를 위해 호텔에서 한 시간 거리의 언덕에 올랐다. 이미 각국의 관광객들이 도착해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해가 솟아오르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잠시뿐. 해는 다시 안개 뒤로 숨어버렸다. 우리의 미혹이 깊은 탓인가. 곳곳마다 안개가 짙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부처님의 성지에서조차 마음껏 참배할 여유가 없었던, 인도에 대해 알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지만, 왜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시각이 호오(好惡)의 극단으로 갈라지는지, 그들 중 일부는 왜 인도 속으로 그렇게 빠져드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선악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기계, 인간, 축생이 한 덩어리로 뒤엉켜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화염세계의 진리를 그 풍경만으로도 설하고 있는 듯했다.

인천공항에 내려 그 시설의 규모와 청결함에 새삼 낯설어하며 우리는 벌써 인도를 그리워하고, 또 다시 인도를 꿈꾸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나라가 어디 그 곳 뿐이겠는가. 내 눈 속에서 부처님을 볼 때,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

소임을 산다는 것은

덕 원 / 사미니과



행자시절, 한 달 동안 정신없던 후원생활을 마치고 큰방에 들어가던 날, 나의 눈앞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용상방(龍象榜)’이라는 장엄한 글씨였다.

“도대체 저것은 뭘까?”

뒤늦게 ‘용상방’이란 용상에 해당하는 수행자들의 소임을 짜놓은 명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용상이란, 수행자를 ‘물에서 으뜸인 용과 육지에서 으뜸인 코끼리’에 비유한 것이다.

곧바로 나에게도 소임이란 게 주어졌다. 첫 소임은 하별좌였다. 원주스님과 별좌스님을 보조하면서 후원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물품을 챙기는 일이었다.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서 하별좌를 찾는데 어

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이곳저곳 사고를 치는 날도 태반, 원주스님의 걱정도 끊이질 않았으니 어느새 사고쟁이 행자가 되어버렸다.

‘출가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건가?’

이런 망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다음날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저 단순히 소임은 ‘주어진 역할에 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임 잘 살아야 한테이, 행자 때 대중스님들 시봉한 복으로 평생 중노릇 하는 기라. 지금은 저금통장에 복을 차곡차곡 쌓는 거라 생각하면 된테이. 복을 쌓고 복을 감하는 것은 니가 하기에 달려 있는 기라!”

소임의 참된 의미를 잃고 ‘그냥 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어리석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나에게 노스님의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것은 희망으로 움터서 내 수행의 삶까지 바꾸어 주었다.

나에게 있어서 ‘소임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수행에 필요한 정진 에너지를 채우는 거라고 다시 해석하고 싶었다. 내게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보다 '지극히 정성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빛바랜 오렌지색 행자복에서 회색옷으로 바뀌었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 있을 무렵, 상채공 소임을 맡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 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내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노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었다.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뺨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봐야지. 덕원, 힘내자!' 이날부터 나의 기도는 매순간 끊이지 않았다. 국 끓일 때, 나물 무칠 때, 볶을 때, 구울 때...

'제불보살님! 숨씨 없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대중스님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수행정진 잘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

능엄주도 치고, 광명진언도 외우고, 염불도 하고... 따로 기도시간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듯 간절한 기도의 감응은 어김없이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음식의 맛인지, 정성의 맛인지 대중스님들은 '맛있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나는 오히려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소임을 살면서 여러 역경에 부딪칠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중에서 갖가지 소임을 살면서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하소임자는 몸으로 상소임자를 시봉하고, 상소임자는 하소임자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칼같이 날카롭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소임을 직접 살아 보고서야 몸소 알 수 있

었던 어려움들, 상반스님과 어른스님들께 걱정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해하기까지 걸린 긴 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꺾이지 않는 아상(我相), 짧고도 긴 시간의 경과 속에서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비워졌을까?

“함께 도를 닦는 벗들이여! 불법은 인위적인 조작은 필요없다. 꾸밈없는 평상의 자유로움, 있는 그대로의 삶, 변소에 가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고 웃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꾸밈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안다.”

-임제 큰스님-

부처의 세계가 별유천지(別有天地)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닌, 이 삶 그대로가 도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을로 아름답게 채색된 운문의 가람은 이제 하나 둘 지난날을 회향하며 텅 비움으로써 가득 채울 줄 아는 지혜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나 또한 마음을 비우고 곳곳에 가득찬 가르침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 법당의 문을 활짝 열어본다. ☸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자리

상 현 / 사집과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莫道鬧處에 失者多하고 靜處에 失者少니라.

대혜스님이 유통판에게 쓴 편지를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자 나는 『서장』을 덮고 잠시 숨 고르기를 했다.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니 달마스님이 2조 혜가스님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혈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기하 도(道)에 들어갈 수 있다.

外息諸緣 하고 內心無喘 하여

心如牆壁 이라야 可以入道 니라.

혜가스님은 달마스님이 내려주신 이 법문을 참구하여 갖가지로 마음과 성품을 설하여 인가를 받고자 했으나 계합하지 못하였다. 참구에 참구를 거듭하던 혜가스님은 이 법문이 다만 방편임을 알고 홀연히 깨달음을 얻는다. 마음을 장벽과 같이 만드는 일이 다만 인연에 따른 방편일 뿐 구경법이 아니라는 말에 나의 기억은 3개월 전으로, 또 1년 전으로, 1년

전에서 다시 3년 전 행자시절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갔다.

“행자님, 좀 들어와 봐요.”

힘든 만큼 재미있었던 행자시절, 도량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 스님이 원주실에서 혼자 차를 드시다 지나가던 나를 부르셨다. 긴장한 채 스님이 주시는 녹차를 서너 잔 받아 마셨다.

“행자님, 밝은 건 좋지만 머리 깎은 사람이 그렇게 큰소리로 깔깔깔 웃고 다녀서야 되겠어요? 어떤 때 보면 행자님이 머리 깎은 사람 맞나 싶어요.”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순간 쇠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잘 웃는 게 왜 문제인가? 스님이라고 다 딱딱한 모습을 해야 하나?’ 하는 반발심이 생겼다. 그러나 반발심이 서서히 가라앉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 자신이 시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지한 순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1년 전 치문 가을, 감자가 한 대야에서 서로 문질러지듯이 60명 가까운 인원이 치문반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정신없이 부대끼며 살고 있었다. 어느 간경시간에 강사스님께서 출가수행자

를 경책하는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설명하시다가 지금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하셨다. 마치 동네학원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처럼 산만하고 어수선하다고 하시면서 수행자로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수행을 지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강사스님의 걱정 어린 말씀은 가슴깊이 새겨졌고 나는 찬찬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간순간 목소리 톤이 커지고, 이 말 저 말을 늘어놓고, 질서 없이 고무신을 벗어 놓고, 까불고 웃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 내가 들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과 행동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진심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니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을 거두어들이다 보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들뜸과 가라앉음이 두레박처럼 오르내리는 걸 느끼면서 부처님께 들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여윌한 수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조금씩 들뜸이 없어지면서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조용하고 충만한 방학을 금당에서 보내고, 4년 강원생활 중 꽃이라고 하는 사집 첫 철이 되었다. 『서장』을 배울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던 나에게 사집 첫 철은 산람함 그 자체였다. 이 일 저 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날마다 하루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라는 종성(鐘聲)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간경시간이 다 되도록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다. 집중되지 않는 산만한 분위기에 잔뜩 불만이 생겨서 반 스님들을 향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라며 짜증을 냈다.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난 하나도 안 어수선한데.... 아 마 상현스님 속이 어수선한가 보다.”라고 말했다. 난 그때 또 한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나는 언제부터인지 주변 스님들에게 “시끄럽다”, “어수선하다”, “조용히 좀 해라”는 말을 자주 내뱉고 있었다. ‘열반의 세계는 적적하고 고요함 그 자체라는데 그 세계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한 곳은 좋아하고 시끄러운 곳은 싫어하는 분별심을 여전히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게 고요함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있을 때 대혜스님의 『서장』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반 스님에게 들은 한 마디가 더 크게 느껴졌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산란한 데 있던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方便일 뿐, 고요한 데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고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며, 그 망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자리를 찾고 있는 지금, 어떻게 수행을 지어나가야 할지 대혜스님께 여쭙어 본다면 뭐라고 답해 주실까?

『서장』을 다시 펴 볼 뿐이다. ㉔



아름다운 참회

편집부

니체는 인간을 행복조차 배워야 하는 짐승이라고 했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배우지 않고도 최선의 삶을 산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 있으면서도 사는 게 서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대개는 제 무덤을 파는 짓이다.*

굳이 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는 것이 서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탐진치에 젖어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에 가려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무시 겁래로 살아오는 동안 작은 실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허물과 심지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게 된다. 개인의 잘못은 그 개인과 그 주위를 둘러싼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지 만 기업이나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은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나라 안팎이 요즘처럼 시끄러웠던 적도 없다. 미국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고, 그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전체 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 종교 차별 등의 행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은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 떠밀려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혼란과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사회구조를 탓하거나 지도자를 탓하거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게 된다. 그 원인은

*참고 : 고병권,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그린비

철저히 규명해 보아야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개개인이고, 그 경계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개개인이며, 개인의 잘못이 모여서 전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조해 보는 참회를 해야 세상은 변할 것이다.

참회란 자기 자신의 잘못, 허물, 죄 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게 하려는 자신과의 다짐이다. 비록 오역죄를 지었다라고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죄가 경감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참회는 중생의 가장 큰 무기이자 또한 방패막이기도 하다.

참회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가장 잘 전해져서 유지되어 오는 곳이 승가(僧伽)일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의 공부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기 정화 작업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참회'라는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포살과 자자(自恣)의 형태로 행해져 왔다. 그리고 현재 승가에서의 참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일상의 규칙, 대중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계율과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화되어 있다.

운문사에서는 매일 새벽예불마다 온 대중이 모여 108대에참을 한다. 특별히 잘못된 일이나 허물이 없더라도 지나온 모든 생(生)으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혹은 의식하고 지었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지었던,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크고 작은 모든 죄업들을 참회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상적으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스님들에게 스스로 공개적으로 알려져 그와 같은 잘못이 다시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참회(發露懺悔)를 한다. 그리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서로간의 이해 부족으로 언쟁을 하거나 계율을 파했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 대중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여름 범불교도대회에서 수경스님은 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야기되는 시국 상황을 냉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시선을 되돌려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잘못이 타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연기적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임을 먼저 인정했다. 그리고 오체투지의 방편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반조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참회의 기도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실제로 오체투지를 했으며, 지난 10월 26일 공주 계룡산 신원사에서 1차 오체투지 순례를 원만히 회향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의 예가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참회를 하고나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곤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깨달아서 완전히 무명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한 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기반성, 자기반조 없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참회를 했거나, 참회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생각으로 혹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참회를 하기 때문이다. 진실하다는 것은 입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順)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진실한 참회는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천으로 드러날 때에만 진참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❶



학장스님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



송편빚기



제37차 동문회



수덕사 법화경 독송대법회

운·문·소·식

- 9월 2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7일 학장스님께서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라자위달라야 대학교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날 오백전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가 있었습니다.
- 9월 8일~10일 화엄반 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증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1일 염불을 시작으로 맹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요가, 피아노 등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12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올력이 있었습니다.
- 9월 14일 추석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9월 17일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9일 제37차 총동문회(회장 명심스님) 정기총회가 삼강원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6일~10월 9일 교무스님과 대교과 스님 50명이 13박 14일간 인도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5일 重九日祭가 조영당에서 있었습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 개산대제에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7일 운문유치원 봉불식에 주지스님과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11일 고추따기 대중올력이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신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에 교무스님과 율원생 스님, 사교반 스님 등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18일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 법화경 독송 대법회'에 학감스님 외 어른스님 2분과 화엄반, 사교반, 사집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4일 가을철 자초에는 장주스님의 2008년 도서관 현황보고와 화엄반 스님들의 인도 졸업여행 보고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30일~31일 제8차 전국승가대학 교직원연수회에 학감스님 외 강사스님 4분이 참석하셨고, 시청각실에서는 김호석 화백님의 '전통회화'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에 전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3일 학장스님을 모시고 강사스님과 율원생 스님 전원이 문화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 11월 5일 가을철 두 번째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7일 가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1월 11일 가을철 중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 | | | |
|-----------|-----------|-----------|-----------|
| · 선광열 불자님 | · 이옥수 불자님 | · 이기태 불자님 | · 권혁창 불자님 |
| · 김벽기 불자님 | · 정영미 불자님 | · 구신호 불자님 | · 박용범 불자님 |
| · 이광섭 불자님 | · 김영자 불자님 | · 김형태 불자님 | · 동혜스님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FAX 겸용)

〈바로잡습니다〉

여름호(105호) 뒷표지의 '표지사진' 설명에서 피하당의 '피(被)' 자가 '피(披)' 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雲門』 편집부는 정확하고 주의 깊은 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